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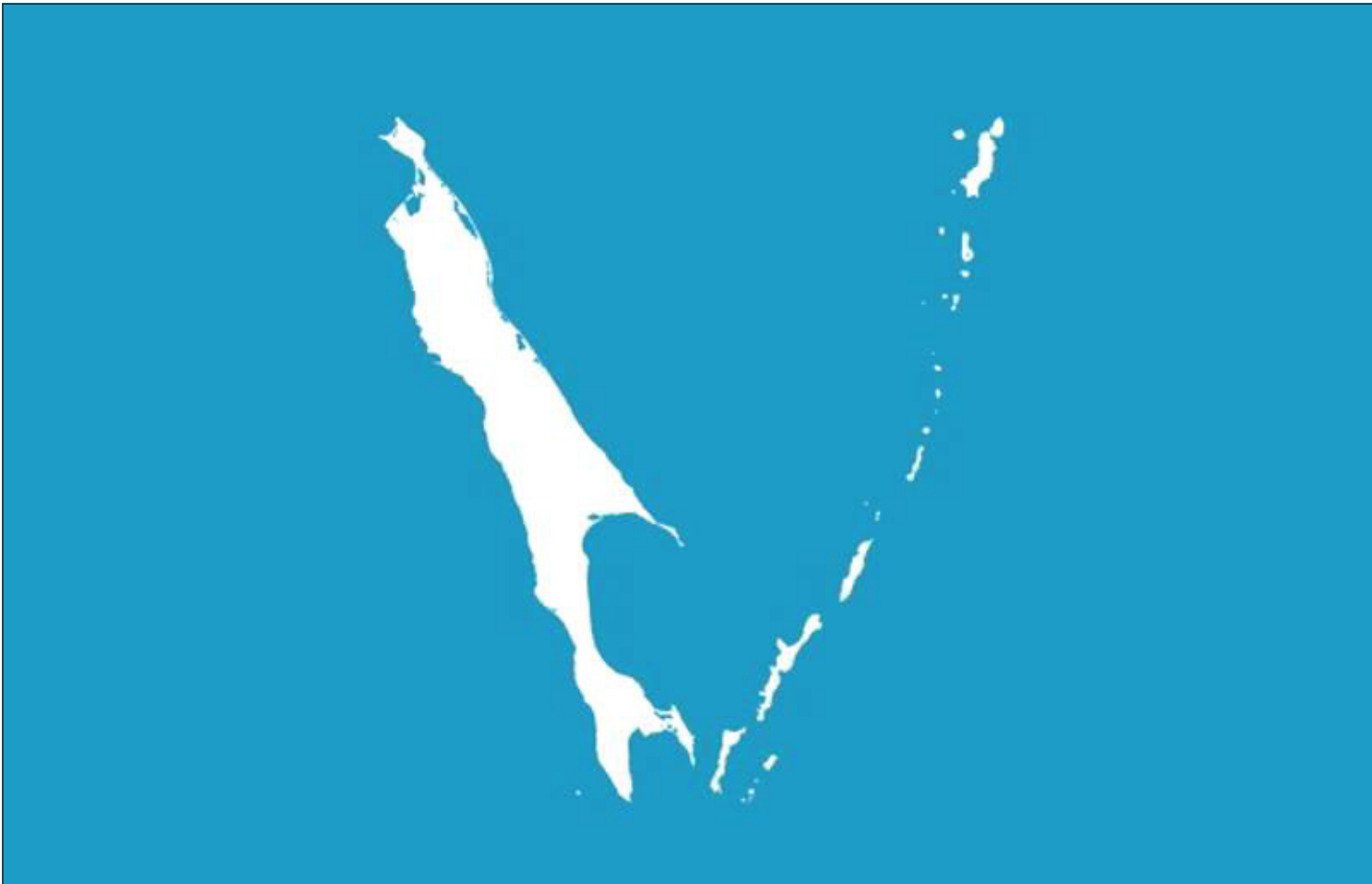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4월23일(금)
...(음력 3월 12일)...
Пятница
23 апреля 2021г.
№ 16 (11933)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4월 26일은 사할린주 깃발의 날을 기념한다. 청록색을 배경으로 사할린 섬 및 쿠릴열도 - 사할린주를 반영하는 깃발.

(사할린주 정부 사이트에서)

친애하는 여러분!

사할린주 깃발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청록색을 배경으로 사할린의 섬들의 모습이 있는 깃발을 주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기의 상징은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단합시키며, 우리 지역의 독특성을 강조하고 지역의 과거와 현재의 성과에 대한 자긍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사할린주는 수십 년간 괄목할 만한 발전의 길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할린이 더욱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지속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 서비스와 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환경보호와 주택 및 교통 접근성의 문제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공로입니다. 조국의 땅끝을 사랑하고, 청렴하게 일하며, 지역의 경계를 넘어 더 멀리 사할린 지역을 빛내는, 열정을 가진 수천 명의 주민들이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무수한 승리 즉, 사할린주의 깃발을 높이 들어올릴 기회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사할린주 깃발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알렉시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사할린주, '올해의 교사'경연대회 개최

사할린주 15개 지역에서 23명의 교사들이 전문 교수법을 발표한다. 세웨로 쿠릴스크 지역의 교사가 참가자들 중 첫 번째로 발표했다. 대회의 개막식은 4월20일 '스콜리차' 강당에서 열렸다. 교사들에게 사할린주 정부 주지사의 명의로 블라디미르 유슈크 부총재가 인사를 전했다.

'올해의 교사' 선발에 초등 학년의 교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물리, 영어, 지리, 정보통신, 생활안전규칙, 러시아어, 문학, 생물 과목의 교사를 비롯해 특수 아동교육(장애아)학자, 심리학자, 교육자들이 참가했다. 참가 교사들의 경력은 3년-23년이다.

경연을 통해 우수교사, 교육자, 교육심리학자, 특수아동(장애아) 교육자, <사할린주의 올해 디지털 교사> 추가 부문의 우수교사를 선발한다.

4월 26일 대회 폐막식에서 우승자를 발표하고 4개 부문의 최우수상 수상자는 전국 전문 교육자 경연 결승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진다.

모스크바, 사할린주 공개의 날 진행

4월 22일(목),23일(금) 양일간 모스크바에서 투자자들을 위한 사할린주 공개의 날이 개최된다.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주택 건설, 목재 가공, 사할린과 쿠릴 지역의 수소 및 대체 에너지 분야에서 사업 개발의 전망과 가능성의 지표가 소개됐다.

사할린주 정부는 러시아 연방 극동지역 및 북극 개발부와 극동지역 및 북극 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양일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실험에 사할린주의 참여가 직접 관련된 일련의 투자기획을 발표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는 온실가스 배출을 위해 배출권 거래 제도를 위한 시험 지역이 되어야 한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온실 가스의 흡수 확대에 따른 목표 지수를 설정하고, 기후변화 기획과 탄소량의 전환 지원을 위한 제반시설 구축을 제안하는 법안이 작성되었다.

정부와 사업자 간 건설적 대화를 위해 사할린 정부 기관, 부처 및 러시아 연방 단체들의 지도자들과 대형 국영기업들 및 회사의 대표들이 초청된 가운데 사할린 주지사 알렉시 리마렌코와 러시아 연방 극동지역 및 북극 개발부 장관 알렉세이 체쿤코브 비롯해 여러 지도자들이 기조 회의에 참석했다.

티몹스코예 지역의 목재 가공 기술단지 기획과 '코르사코브스키' 최첨단 건설공법의 생산에 따른 산업 건설단지, 극동지역에서는 최대 풍력발전소가 될 우글레고르스크 지역 풍력발전소 클러스터 건설 기획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러시아의 기업들은 수출용 수소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클러스터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단신

사할린, 전자투표 시스템 시험에 참여

사할린주는 4월 21일부터 '선거' 국가 자동화시스템 전국적 훈련의 일환으로 원격 전자투표 시험에 참가를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러시아 국민은 누구나 gosuslugi.ru 포털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5월 12일-14일까지 원격 전자투표 적용 훈련을 진행한다. 등록 및 허가부터 투표와 총결산까지 모든 투표 단계가 완전히 재현된다.

시험 참가 신청은 5월 7일까지라고 주 선거위원회가 밝혔다.

사할린 주 아빌림픽 선수권대회 6번째 개최

제6회 '아빌림픽' (국제 장애인 기능 올림픽) 사할린주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전문 기능 대회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다. 경기에 학생, 대학생, 기능인 약 2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24개 종목에서 기량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주 아빌림픽 개막식은 4월27일(화) 스톨리차 강당에서 열리며 경기는 30일(금)에 진행된다. 경기 우승자는 가을에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국제 아빌림픽 결승전에 진출하게 된다.

'게오르기 리본' 행사 시작

4월 22일 12시 유즈노사할린스크 청소년 주도센터에서 '게오르기 리본' 행사를 시작했다.

체호브 센터 앞 광장에서 자원봉사자 30명이 '윤아르미야(청소년 사관학교)' 군 애국 단체운동의 활동가들과 공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리본을 나눠주었다. 행사는 4월 29일(목)과 5월5일(수) 오후 1시-2시까지 체호브 센터 앞, 주 도서관 광장 앞, 가가린 문화·휴식공원에서 계속된다. 5월 9일(일) 전승절에도 게오르기 리본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 주도센터는 총3천 개의 리본을 배포할 계획이다.

사할린주, 4월 21일 코로나19 상황

이날 사할린주에서 18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935년 출생의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 여성 1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하였으며, 16명이 완치하여 퇴원하였다.

4월 21일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 총 22,370명이며, 21,952명이 퇴원, 43명이 사망, 375명이 치료 중에 있다. 53,841명이 백신을 접종했으며, 이 중 총 37,363명이 2차 접종까지 받았다고 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현재 백신 접종은 96개 접종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들에게는 방문 접종을 한다.

새고려신문

2021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91루블리 85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텍스는 П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유즈노사할린스크 할머니들, 오랜만에 노인정에 모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1년 이상 모이지 못한 어르신들이 사할린주에서 팬데믹 제한을 해제한 가운데 지난17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회장 림중환)가 노인정 모임을 다시 재개했다. 이날 노인정을 찾은 약 20명의 할머니들은 정성껏 차린 점심식사 대접을 받고 즐거운 춤과 노래로 여가를 보내며, 오랜만에 서로 만나지 못한 할머니들끼리 많은 얘기도 나누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원하는 할머니 10여 명은 미리 신청하여 이날 1차 백신 접종도 받았다.

어르신들을 환영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림중환 회장은 앞으로 6월까지 한 달에 두 번 노인정 모임을 가질 계획을 발표하고 여름에 시한인회 사무실과 마당 수리 계획도 밝혔다.

반가운 노인정 모임에서 웃음꽃을 피우시는 할머니들이 1년 이상 만나보지 못한 사이에 많이 늙었고, 체력도 많이 떨어지신 것이 보였다. 순간 울컥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좀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순신 기자)



탄소중립 시대... 한·러 수소경제 협력 주목

KOTRA, '러시아 수소경제 동향 및 협력방안' 보고서 발간 러시아와의 수소경제 협력 방안 담아내... "수소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것"

KOTRA가 12일 '러시아 수소경제 동향 및 한국과의 협력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최근 수소경제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로스아톰 등 유력한 협력 파트너를 소개하는 한편 러시아의 대외 협력 현황과 한국과의 협업 방안을 담았다.

에너지 수출대국인 러시아는 수소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2020년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2035년 러시아 에너지 발전 전략'에는 '러시아 수소 에너지 개발 로드맵'이 포함돼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러시아는 풍부한 천연가스 및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2024년까지 글로벌 수소 공급국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2024년 수소 20만t 수출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200만t 이상으로 수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러시아 원자력 공기기업인 로스아톰은 사할린 가스전에서 블루수소를 생산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로의 수출을 모색하고 있다.

블루수소 생산에 필요한 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돼있는 사할린 지역에 수소 클러스터를 구축해 수출기지로 만들 계획이다.

러시아는 일본, 독일 등과 수소 공급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로스아톰은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소 수출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협력한다는



[KOTRA 제공]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이미 체결한 바 있다.

일본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호주와의 협력을 경험 삼아 2024년 러시아산 수소 초도 물량을 수입할 예정이다.

세계 최대 천연가스 회사인 가즈프롬은 건설 중인 러시아-독일 간 파이프라인 '노드 스트림-2'(Nord Stream 2)가 독일 및 기타 유럽으로 수소를 공급하는 매력적인 경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에 최대 70%까지 수소를 혼합해 수송할 수

있다고 한다.

KOTRA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수소경제에서 한·러 양국의 협력 확대 방안으로 △ 러시아산 저렴한 수소 도입 △ 수소 저장·운송 분야 기술협력 △ 글로벌 수소 시장으로의 한·러 공동 진출을 제시했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러시아는 막대한 수소 생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주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극저온 공학기술 등 수소 저장·운송 분야 기초과학기술이 뛰어나다."며 수소 협력의 파트너로서 러시아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KOTRA의 '러시아 수소경제 동향 및 한국과의 협력방안' 보고서는 해외시장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국 중소기업뉴스)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 공원의 음악분수, 5월1일부터 가동

유즈노사할린스크의 가가린 문화와 휴식공원에서 빛과 음악 분수를 5월 1일부터 가동한다. 공원 총책임자인 빅토르 칼류즈니에 따르면 새로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새로운 빛의 향연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전했다. 4월20일에는 음악분수를 설치한 첼라빈스크 공장의 전문가들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이들은 1년 전에 사할린에 올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음악분수 시설의 기술적 점검과 새로운 빛과 음악분수 가동은 연기되어 지금에서야 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새로운 기술은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한다. 작동 시 몇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체적으로 음악분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수의 조정장치, 우리에게 조연할 부분을 점검할 예정이다. 우리에게 3번째가 되는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에 교체할 예정이다."라고 빅토르 칼류즈니 총책임자가 말했다.

지난해에는 6월 초에 음악분수가 가동되었고, 2019년 9월 14일 유즈노사할린스크 탄생 137주년에 처음으로 가동이 시작됐다.

Fontan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парке заработает 1 мая

Светомузыкальный фонтан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ени Гагарина запустят 1 мая. Как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парка Виктор Калужный, в этом году зазвучат новые мелодии и можно будет увидеть новые световые композиции. 20 апреля на Сахалин из Челябинска прилетят специалисты завода, которые монтировали фонтан. Они должны были приехать еще год назад, но не смогли из-за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Техосмотр объекта, а также запуск новой светомузык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пришлось отложить,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о только сейчас.

— Любая новая техника все равно нуждается в проверке. Во время эксплуатации возникают какие-то вопросы. Специалисты полностью проверят, как рабо-

тает фонтан, все его настройки, что-то нам подскажут. И привезут новую программу, она будет у нас третьей, будем их чередовать, — говорит Виктор Калужны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фонтан запустили в начале июня, а впервые он заработал в парке 14 сентября 2019 года, в 137-летний день рождения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유즈노사할린스크, '체호비아나' 개최

'사할린 섬' 체호브 책 박물관에서 '체호비아나' 순환 행사가 열린다.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체호브를 읽으며' 예술적 낭독과 학교 연극 무대에서 체호브 작품의 주인공들 극화 경연이 개최됐다. 3일간 홈스크, 네웰스크,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유즈노사할린스크, 토마리, 아나와, 티몹스코예, 유즈노쿠릴스크, 스미르니흐의 학교 팀들이 작가의 40개 이상의 작품들을 박물관 무대에 올렸다. 학생들은 촬영한 동영상 상영 방식과 직접 무대 공연으로 경연에 참가했다.

일주일간 '학교 무대에 체호브 작품의 주인공들' 극화 경연이 막을 내린 가운데 가장 많은 공연이 이뤄져 이에 24개의 창작팀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말의 성', '악흔녀'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연극을 공연했다. '체호비아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4월21일(수)에 '체호브와 사할린' 청소년 학술 콘퍼런스와 23일(목)에 향토 보드게임 경기가 펼쳐졌다.

모든 경연의 총결산으로 참가자 시상식은 4월 28일 14시 '옥차브리'영화관에서 열린다고 박물관 측이 전했다.

"Чеховиана" проходи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Цикл мероприятий "Чеховиана" проходит в музее книги А. П.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В течение трёх дней, с 14 по 16 апреля, состоялись конкурсы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чтения "Читая Чехова" и инсценировок "Герои Чехова на школьной сцене".

За три дня в стенах музея прозвучало более 40 произведений писателя от школь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из Холмского, Невельского,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Томаринского, Анивского, Тымовского, Южно-Курильского и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ов. Это и оч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ребят, и формат видеопозаказов.

Завершилась неделя конкурсом инсценировок "Ге-

рои Чехова на школьной сцене". Это самая многочисленная площадка, в не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24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Ребята показали спектакли по мотивам произведений "Лошадиная фамилия", "Размазня", "Чеховиана" на этом не завершается. 21 апреля состоялась юношеск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Чехов и Сахалин", а 23 апреля пройдёт турнир краеведческих настольных игр.

Торжественное награждение участников по итогам всех конкурсов пройдет 28 апреля в 14:00 в ККЗ "Октябрь",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узея.

유즈노사할린스크, 부활절 장인들의 박람회 개최

4월 24일(토) - 25일(일) 사할린 과학기술정보센터 전시실에서 연초 이래 세 번째 장인들의 박람회가 열린다. 이번엔 창작 기념일 주최 측은 올해 주요 부활절 행사를 주제로 했다. 공예 장인들은 많은 기념품과 장식미술의 소품, 인형, 장식품, 도자기 공예 등을 준비했다.

모든 방문자들은 다재다능한 장인 공동체의 거대한 창작의 세계로 들어가볼 수 있다.

전례대로 박람회에서 창작 행사가 열린다. 4월24일(토) 11시에는 '조각보 섬' 퀼트 공방 전시회가 열리고, 같은 날 13시에는 '플라멩고 코라산' 교실의 댄스쇼가 진행된 다.

또한 주최 측은 새로운 포토존을 마련하여 박람회 방문객들에게 놀라운 봄 축제의 분위기를 안겨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박람회는 4월 24일(토)-25일(일) 11시 -17시까지 열리며 입장은 무료이고, 장소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무니체스키 거리, 31이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йдет пасхальная ярмарка мастеров

24-25 апреля в выставочном зале Сахалинского ЦНТИ состоится третья с начала года ярмарка мастеров. Организаторы творческих праздников на этот раз посвятили ее главному пасхальному событию года. Мастера приготовили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сувениров, предметов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игрушек, украшений, керамических изделий... Каждый посетитель сможет открыть для себя огромный творческий мир талантли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мастеров.

(8면에 계속)

한민족 예술에 관한 경시대회에 학생 155명 참가신청

사할린국립대학교와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에 관한 경시대회(온라인 및 오프라인)가 4월 16일(금)~17(토)일에 개최되었다.

지난 16일(금) 어문·역사·동양학 대학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동대학의 임 엘비라 학장이 이미 몇 년에 걸쳐 주한인협회와 공동으로 개최된 경시대회에 학교 학생과 대학생 155명이 참가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주 정부 지원 <세대의 연결, 전통의 계승>기획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경시대회의 주제는 <조선시대의 전통 회화(민화)>다.



개막식 참가자들에게 주 정부 사회소통국 예고르 움노브 국장,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환영의 인사를 하며 학생들이 한민족 문화와 예술에 관심을 갖고 경연에 참가한 것에 대한 반가움을 표하고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했다.

최 인나 한국어 교수는 경연 진행과 사할린 국립대 사이트 등록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17일(토)에 온라인상으로 열린 경시대회 질문에는 학생들이 답변했다. 결과 발표와 시상식은 5월에 진행했다.

(배순신 기자)

해외에서 돌아오는 러시아 국민들, 코로나19 진단 두 번 한다

5월 1일 이후 러시아 소비자보호감독청의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러시아인 여행객들은 입국일부터 5일간 두 번의 코로나19 항원·항체 검사(PCR)를 2회 받아야 하고 국가서비스 사이트에 연구소의 검진 결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검사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검사 간격은 하루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해외에서 비국민과 외국인 입국 시 선별적 검사가 러시아 공항 내에서 이뤄진다. 앞서 소비자보호감독청은 5월1일 이전에 터키와 탄자니아에서 입국하는 러시아인들에게 러시아 연방 내에 입국한 날부터 5일 내에 코로나19 재검사를 의무화했다. 현재 어떤 교통편으로든 러시아 연방 내에 입국하는 러시아 국민들은 3일 이내에 코로나19 항원·항체 검사(PCR)를 받아야 하며 단일 국가서비스 사이트에 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사할린주, 전승절 맞아 '전쟁 시기 자녀들'에게 5천 루블리 지급

전승절 76주년을 앞두고 사할린과 쿠릴 주민 1만9천 명에게 물질적 지원을 하는 가운데 4월 말까지 수여자들에게 지급된다. 사할린주가 전승절을 맞아 전쟁 시기의 출생자(1922년6월22일~1945년9월3일)들에게 5천 루블리를 지급하는 것은 전통이다. 지난해에는 예외적으로 대조국전쟁 75주년을 맞아 주 자금 지원 규모가 일시 2배 증가했었다.

대조국 전쟁 참전자들에게는 매년 지원금 7만5천 루블리가 4월 말까지 지급되며, 노동전선 참전자, 레닌그라드 봉쇄 시기의 주민들, 미성년으로서 파시즘의 포로였던 사람들에게는 5만 루블리를 지급한다. 사할린주는 대조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종합적 사회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주택 서비스 관리비 지원, 안구 외과치료, 안경 제조 및 수리, 휴양 및 요양 치료, 치아 보철 치료, 주택 수리로 매월 및 4분기 지원금이 지급되며, 또한 참전자들에게는 시내 및 지방 간 버스 이용도 무료 지원하고 있다고 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

10.4~7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 결정

- 4월 20일(화),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5차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은 온·오프라인 병행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오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국내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4월 20일, 14개국 18명이 참석한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금년도 세계한인회장대회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인 심상만 아시아한

인회총연합회장, 주점식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장을 비롯한 대륙별 총연합회장과 지역회장 등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들은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결과 보고와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 기본 계획 의결,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김성곤 이사장은 최근 아시아 혐오범죄 대응 및 코로나19로 인한 동포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었으며, 재단의 '찾아가는 동포재단' 프로그램에 각 대륙별 총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재외동포재단, 코로나와 관광객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동포사회와 소통 강화

- 4.21(수), 유럽 한인회장들과 3번째 '찾동' 행사 개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유럽 지역 동포사회 주요 현안 협의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4.21.(수) 비대면 화상 간담회인 '찾동(찾아가는 동포재단)'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유재현 재유럽한인회총연합회장, 박선유 재독일한인회총연합회장을 비롯한 14개국 35개 현지 한인회장이 참석하여 다양한 동포사회 현안을 공유했다.

※ 주요 안건 : 유럽 한인 100주년 기념 책자 발간 후속 조치,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관심과 배려, 각 국별 대표 한인 차세대 네트워크 강화, 백신 접종

및 PCR 증명서를 갖고 있는 재외동포의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 동포단체 지원금 및 코리아넷 사이트 개선방안 등.

특히, 한인회장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럽 한국 관광객 등이 급감하여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하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취약계층 동포 지원을 하고 있는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이번 찾동 행사의 실질적 효과가 좋음을 고려, 정기적인 찾동 행사를 요청했으며, 현재 유럽지역에 주재관이 없음을 감안, 조속한 독일 등지

에 유럽지역 주재관 파견을 요청했다.

※ 재외동포재단 해외 주재관 파견 지역 : 일본(도쿄), 미국(뉴욕, LA), 중국(북경), 카자흐스탄(알마티), 베트남(호치민), 호주(시드니).

한편, 관할공관과도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당부한 김성곤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외동포사회의 어려움이 점차 가중됨에 따라, 한민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재외동포재단은 동포사회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해소하기 위한 소통 활동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할린(러시아)의 흰 눈

전영희

사할린의 눈은 특별하다네.
하얗고 부드럽고 깨끗해.
눈 오는 날 내 마음은 설레네.
반짝이는 보물들이 떨어지는 듯,

더운 나라 외국에 머물 때
눈부신 러시아의 눈이 늘 그림다네.
러시아의 흰 산에 오르다 목이 마를 때
물 대신 한 움큼 눈송이를 마시네.

내 고향 눈 나라 사할린
태풍이 와도 상쾌해
눈 산으로 변해 버린 도시의 거리
헤엄치고 싶네. 하얀 골짜기 사이로,

외로운 날 겨울에는 가만히 기다리네.
조용 조용히 하늘에서 오시는 순백의 손님
내 마음을 쓰다듬으면
잠자던 꿈도 이루어질 듯 꿈틀거리네.

오늘은 아침부터 눈이 폴폴 내렸네.
어디선가 참새들이 우루루 날아와
우리 마당 나무 가지에 앉네.
아마도 배가 많이 고풍 것이아.

눈이 덮힌 마당에는 쪼아 볼
먹잇거리들이 당최 보이지 않네.
마당에 당장 먹이를 뿌려주고 싶은데
아무래도 눈이 삼켜 버릴지 않을까?

끝내 눈은 그치었네.
파란 하늘, 흰 구름은 어디론가 떠나고
바람은 나뭇가지 흔들며 뒤를 따르네
혹시 오늘 밤에 눈이 다시 올까?
아니면 별이 되어 반짝거릴까?



킨, 사할린 월레포럼 개최

KIN(지구동포연대)단체는 사할린 한인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성과 등을 함께 공부하면서 사할린 한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할린 한인 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며 향후 운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사할린 월레포럼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일제 강제동원 이전 시기 한인의 사할린 이주와 정착촌의 형성"이란 주제로 이준영 박사가 발표를 준비했다.

사할린 월레 포럼

일시 : 4월 27일(화) 저녁 7시30분(한국 시간) ZOOM

〈주제〉 "일제 강제동원 이전 시기 한인의 사할린 이주와 정착촌의 형성"

〈발표자〉 이준영

한양대학교 '지역문화 창출과 인문활동 방법론 구축을 위한 일본학 교육연구팀' PD연구원, 한양대학교 일본학 박사

〈발표내용〉

한인이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기 이전에 이미 이주했던 사례와, 한인들이 구성된 사할린 내 한인정착촌을 소개함으로써 사할린 한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참가신청〉

<http://bit.ly/사할린월레포럼>

4.27. 정오까지 접수.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Элина Ким стала победителем областного конкурса рисунк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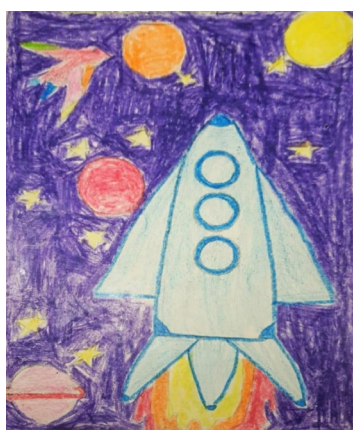
Второклассница школы №2 г. Поронайск Элина Ким стала победительницей областного конкурса рисунков ко Дню космонавтики.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онкурса стала газета «Комсомольская ПРАВДА - Сахалин». Элина была приглашена в офис редакции для вручения призов.

Свои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Элина решила поделиться и с читателями нашей газеты.

Идти только вперед

Меня зовут Элина Ким. Мне 9 лет. Я живу в городе Поронайске и учусь во 2-ом классе. Мне всегда нравилось рисовать, всё своё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я рисую. Кроме моего любимого занятия рисования, я занимаюсь танцами, английским языком и мастерю различные поделки своими руками. Когда я пошла в первый класс, мои родители отдали меня в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школу, там я тоже участвую во всех конкурсах и занимаю призовые места.

Как-то вечером меня позвал папа и сказал, что проходит конкурс рисунков ко Дню космонавтики, на тему «Птица-ракета» и спросил меня, не хотела бы я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этом конкурсе. Конечно же, я согласилась. В этот же вечер я нарисовала рисунок, и папа отправил его в редакцию газеты «Комсомольская правда». Через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мне позвонил папа и сказал, что мой рисунок победил. Я очень обрадовалась и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ала, когда я поеду за своими призами. На награждение приехали из г. Холмска мои бабушка и дедушка. Они всегда интересуются нашими делами и радуются моим успехам и успехам моего старшего брата. Эта поддержка и победа придали ещё больше стимула и стремление стараться и стараться, и идти только вперед. Я считаю, что всегда нужно себя пробовать везде и во всём и не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на достигнутом.



О культурных особенностя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ассказали в област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Лекция «Культур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даптация и сохранение в истории» 8 апреля прошла в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Встреча состоялась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Народный Сахалинский гид».

Экспертом выступила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заведующая научно-редакционным отделом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Юлия Дин.

Являясь автором ряда работ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Дин Ю.И. рассказала о тех особенностях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оторы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относятся к ее уникальной культуре и ее сохранению.

Поделив культуру на материальную и духовную, лектор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ла как происходило взаимопроникновение русской 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

Процесс изменения культуры корейцев в ходе адаптации к жизни на Сахалине является естественным с точки зрения приспособления этнической группы к новым условиям в месте проживания и в другом культурном окружении (в советском и российском обществе). Особенно интересно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наблюдать за изменениями в одежде и ед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взаимном влиянии друг на друга русской 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ной традиции.

Материальная культура – жилища, предметы быта, одежда, еда – является производной от условий жизни. Процесс изменения матери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можно проследить по широкому кругу источников, в том числе по тем, которые хранятс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где работает Дин Юлия. Интереснейшие факты о постепенном изменении, например, традиционного свадебного наряда можно проследить по фотографиям, изменение пищевых традиций – по применению сахалинских диких кореньев в корейской кухне. Лектор привела и другие важные факты о корейской материальной культуре, что вызвало живой интерес у аудитории, поскольку данная культура является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сахалинской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Духовная культура связана с ментальными особенностями проживания человека, ощущению его места в мире, механизму принятия жизненно важных решений. Обычаи, традиционные обряды, игры, праздники, песни, танцы,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и искусство, отношение к образованию и родному языку не могут статично застыть в истории, они постоянно изменяются, трансформируются и адаптируются к условиям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Следить за этими изменениями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на конкретных примерах. В среде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таких примеров много – изменение традиционной обрядности при сохранении культурного смысла, принятие и интеграция в русскую культуру при сохранении собственной уникаль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и т.д. Изучение и исследование данной темы – все еще актуальная проблема российской науки.

В заключении своего выступления Юлия Дин отметила, что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о культурно-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любого народа является важнейшим фактором сохранения ее уникальности.

Наш корр.

Стартовал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участие в акции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онлайн»

В этом году по рекомендации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шествие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переносится. Если позволит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ая обстановка оно состоится 24 июня – в годовщину Парада Победы на Красной площади. 9 мая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ройдет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онлайн».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оект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онлайн» собрал почти 3 миллиона заявок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Трансляцию шествия посмотрели около 25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во всем мире.

Прием заявок начался на сайте 2021.polkrf.ru, на ресурсе «Банк Памяти», а также в мини-приложениях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Одноклассники и ВКонтакте. Пользователю нужно зайти в мини-приложение с мобильного устройства или с компьютера, заполнить короткую анкету и загрузить фотографию одного или нескольких героев.

– Акция дала возможность наши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со всего мира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дедов и прадедов, которые сражались в ту страшную войну. Заявки поступили из более ста стран. Писали нам и пожилые люди. О том, что раньше не могли встать в строй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по состоянию здоровья, а онлайн-формат позволил им добавить своих героев в виртуальный строй. Мы решили и в этом году продолжить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онлайн», – отметила сопредседатель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России Елена Цунаева.

Трансляция в каждом регионе стартует в 15:00 по местному времени. Ее можно будет посмотреть на сайте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России, на ресурсе «Банк Памяти», в онлайн-кинотеатре ОККО, а также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Одноклассники и ВКонтакте.

Разработчики учли все пожелания пользователей и внесли ряд существенных изменений в онлайн-шествие. Появ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выбирать и редактировать загруженные фото как героев, так и свои. Теперь можно будет отслеживать все этапы рассмотрения заявки в личном кабинете – с момента подачи до присвоения герою времени участия в трансляции. А после пользователи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ссылку с фрагментом он-

лайн-шествия.

Все, кто разместил данные своих герое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акции и в этом году. Они получат пуш-уведомления от организаторов с уточнением, хотят ли они подать заявку повторно.

– Злоумышленники, которые хотят дискредитировать память героев, не смогут это сделать. Специально созданная нейросеть будет автоматически распознавать лица и не позволит пропустить «вброс». После проверки нейросетью последует второй этап проверки вручную, – рассказал старший вице-президент,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маркетинга и коммуникаций ПАО «Сбербанк» Владислав Крейнин.

Традиционно модераторы – активисты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России, Волонтеров Победы, Поис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России, Рус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а также просто энтузиасты-историки – не дадут пройти в строй анкетам от шутников и недобросовестных пользователей.

– Наши добровольцы уже прошли специальное обучение и готовы к модерации заявок. Кроме того, некоторым ветеранам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необходима помощь в загрузке информации о близких в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онлайн». Добровольцы готовы оказать помощь, – отмети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Волонтеров Победы Ольга Амельченкова.

В этом году законодательно установлена повышенная уголовн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реабилитацию нацизма. Это штрафы до 3-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максимальное наказание – лишение свободы на срок до пяти лет.

Подробности об акции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о горячей линии: 8 (800) 20-1945-0 или по электронному адресу: polkonline@polkrf.ru.

Партнерами проекта стали ПАО Сбербанк, Mail.ru Group и Волонтеры Победы.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движения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Росс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Новым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РК назначен Ким Бу Гём

16 апреля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роизвёл частичные перестановк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Бывший депута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четырёх созывов, министр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с 2017 по 2019 год Ким Бу Гём назначен на должность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В случае утверждения Национальным собранием он заменит на посту главу правительства Чон Сэ Гюна, который подал в отставку, чтоб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2022 года. Ким Бу Гём родился в 1958 году в городе Санчжу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До его официального вступления в должность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будет исполнять вице-премьер, министр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Хон Нам Ги.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значены пять новых министров. Министром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назначен Но Хён Ук, бывший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координации полити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и секретариате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Министром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назначен Мун Сын Ук, занимавший должность втор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начальника управления координации полити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и секретариате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На должность министра труда и занятости назначен бывший член Совета по экономическим, социальным и трудовым вопросам Ан Гён Док. Председатель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вета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ям (NSTC) Им Хе Сук назначена на пост министра нау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Министром морского и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тал Пак Чжун Ён, занимавший должность заместителя главы ведомства.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отметили, что новые должности получили специалисты, лично участвовавшие в выработке и реал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Было подчеркнуто, что цель нынешней перестановки заключается в стремлении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работу по решению приоритетных задач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овым лидером парламентской фракции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избран Юн Хо Чжун

Депута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К четырёх созывов Юн Хо Чжун избран новым лидером парламентской фракции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В его поддержку высказались 104 из 169 участников заседания фракции. Новый лидер обещал приложить все усил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аполнить правящую партию новой силой после поражения на недавних досрочных выборах и провести её реформирование. Он также обещал постараться найти общий язык с оппозицией. До обще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ъезда партии, который назначен на 2 мая, Юн Хо Чжун будет одновременно возглавлять чрезвычайный комитет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Пхеньян подверг критике план Сеула закупить новое оружи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наращивают планы закупок передовых вооружений» именно в то время, когда на Юг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трудности усугубляются из-за глобальной пандемии».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18 апрел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им сайтом «Тхонирэй Мэари» (Tongil Voice).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издание имело в виду решение Сеула импортировать к 2028 году 36 больших боевых вертолётов Boeing AH-64E Apache. «Планы закупки вертолётов - явный признак того, что Юг стремится к военной конфронтации против Севера, а нескрываемое наращивание вооружений Югом вызывает серьёзную озабоченность как внутри страны, так и за рубежом»,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Количество беженцев из КНДР, прибывших на Юг, сократилось на 77%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этого года из КНДР в РК прибыл 31 человек. Это на 77% мен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м же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14 апреля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 журналистами.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РК прибыли 135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беженцев, во втором квартале - 12, в третьем - 48, а в четвёртом - 34. Многие из них, покинув Север, до въезда в РК пребывают на территориях третьих стран,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Китая или государств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Это связано с закрытием границ и ограничениями на передвижение из-з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COVID-19.

Продюсеры группы BTS купят компанию-продюсера Джастина Бибер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компания Hube, которая ранее называлась Big Hit Entertainment, известная тем, что она продюсировала группу BTS, приобретёт 100% акций фирмы американско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менеджера Скотта Брауна Ithaca Holdings и её дочерние компании за 1 млрд 50 млн долларов. Благодаря Ithaca Holdings и её главе, получили известность такие исполнители как Джастин Бибер и Ариана Гранде. Согласно договорённостям, Скотт Браун займёт место в совете директоро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и. Данная сделка соответствует планам Hube по приобретению статуса мировой компании. В 2020 году группа BTS занимала первое место в американском музыкальном чарте Billboard Hot 100.

(RKI)

Зафиксирован самый низкий в мире уровень рождаемости

Южная Корея продолжает показывать самый низкий в мире уровень рождаемости в этом году наряду с быстрым ростом пожилого населения, говорится в докладе ООН.

Общий уровень рождаемости на одну женщину в стране составляет 1,1 в 2021 году, не изменившись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отмечается в докладе фонда населения ООН (UNFPA).

Уровень рождаемости означает число детей, рождённых каждой женщиной в детородном возрасте.

Уровень в Южной Корее оказался самым низким среди 198 обследованных стран и ниже средней глобальной цифры в 2,4.

«В то время как страна продолжает проявлять низкий уровень рождаемости и быстрое старение населения, доля населения в возрасте от 0 до 14 лет составляет 12,3 процента, так же как и в Японии, и около половины средней мировой цифры в 25,3 процента», отмечается в докладе.

Ни одна страна не имеет меньшую долю юного населения, чем Южная Корея и Япония.

Доля населения старше 65 лет составила 16,6 про-

цента в Южной Корее, резко увеличившись с 15,8 процента годом ранее.

Глобально люди старше 65 лет составляют лишь 9,5 процента от всего населения мира, насчитывающего 7,87 миллиарда.

Самая большая до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28,7 процента) отмечена в Японии, немного увеличившись с 28,4 процента в 2020 году. Далее следуют Италия и Португалия с 23,6 и 23,1 процента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жизни в Южной Корее составляет 83 года, занимая по этому показателю 11-е место в мире, при этом южнокорейские мужчины живут в среднем 80 лет, а женщины 86 лет.

Их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оседи,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имеют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жизни в 69 лет для мужчин и 76 лет для женщин, отмечается в докладе UNFPA.

Уровень смертности или число умерших на 100 000 населения составил 11 в Южной Корее и 89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Общее население Южной Кореи составляет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51,3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25,9 миллиона.

ИА РУСКОР

Комфортный бюджет на пенсии — это примерно две с половиной тысячи долларов в месяц

Двое из трех молодых южнокорейцев уже мечтают об уходе на пенсию, как только они скопят достаточно средств.

Опрос онлайн 2 536 человек показал, что 65,9 процента мечтают о ранней пенсии. Они хотят скопить 1,37 миллиона вон и уйти на покой в возрасте 51 года (US\$1 = W1 126). Но это все же на 10 лет позднее, чем американцы, где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ая категория населения часто планирует уйти на пенсию в возрасте 35-45 лет.

Респонденты сказали, что они откладывают в среднем 52 процента своих месячных заработков, при этом 29,4 процента респондентов сказали, что они откладывают или инвестируют более 70 процентов.

Но что стоят 1,37 миллиарда вон? Финансовые экс-

перты заявляют, что получение от 5 до 6 процентов ежегодных возвратов от недвижимости и акций позволит тратить 4,57 миллиона вон в месяц. Это обеспечивает комфортную жизнь и значительно превышает 2,68 миллиона вон, которые национальная пенсионная служба называла оптимальной месячной суммой для пенсионеров в 2019 году.

Некоторые приверженцы раннего ухода на пенсию, которые разместили деньги на фондовом рынке, получили ежегодные возвраты в 16,5 процента. Но эксперты предупреждают: «Было бы не мудро вкладывать все деньги в рискованные инвестиции, чтобы сделать быстрые накопления. Важнее поискать способ инвестирования, приносящий стабильные доходы».

ИА РУСКОР

День рождения Будды пройдет без 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Ежегодный парад фонарей по случаю дня рождения Будды отменен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коронавируса, сообщили в буддистском сообществе Южной Кореи.

Буддистское сообщество обычно проводит трехдневный фестиваль фонарей, называемый по-корейски «Yeondeunghoe», накануне дня рождения Будды. Ключевым событием фестиваля считается парад в центре Сеула.

Но в этом году парад отменен наряду с другими мероприятиями из опасений инфицирования COVID-19. Первоначально парад планировался на 15 мая, за четыре дня до дня рождения Будды, выпадающего в этом году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на 19 мая.

Парад отменяется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отменено впервые с 1980 года, когда в Сеуле было введено во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для контрол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озникшего в апреле того же года.

ИА РУСКОР

На кинофестивале покажут фильмы из 48 стран мира

Ежегодн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городе Чонджу пройдет под девизом «Фильм продолжается».

На 22-м по счету фестивале будет показано 186 фильмов - 77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 109 зарубежных из 48 стран. Из всех 141 фильм будет показан онлайн, а остальные на 17 экранах крупнейших кинотеатров города с 29 апреля по 8 мая.

Фестиваль откроет фильм «Отец» сербского режиссера Срджана Голубовича об отце с двумя детьми, проживающими в нищете в небольшой сербской деревне, а закроет «Джозеп» французского режиссера Ауреля. Биографический фильм рассказывает о жизни Джозепа Бартоли, испанского иллюстратора, который был вынужден бежать во Францию, спасаясь от диктатуры во время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в Испании в конце 1930-х годов.

ИА РУСКОР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лигран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1 руб. 8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Сахалине дали старт Всероссийской «Вахте Памяти»

Мероприятие, собравшее на острове более 25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оис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со всей страны, началось с митинга на площади Слав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Та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ласти, силовых структур,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озложили цветы к Вечному огню.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состоялось в стенах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 собравшимся обратился Герой России, референт Упра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по общественным проектам Алексей Романов. Он озвучил приветственное слово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 Священная битва советского народа за свободу и независимость, увенчавшаяся Победой, стала событием огромного морального 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значения. Наш нравственный долг — хранить правду о подвигах предков, восстанавливать имена и судьбы павших защитников Родины и мирных жителей, погибших от рук нацистов и их пособников. Ключевая роль в этой работе отводится поисковому движению. Отрадно, что оно набирает силу, объединяет тысячи людей.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в ваших рядах — много молодых участников, которые гордятся боевыми и трудовыми свершениями военного поколения, — отметил Президент.

На Сахалине поисковики обмениваются опытом,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тематических круглых столах и экскурсиях. Мероприятия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в течение двух дней.

От имени главы региона с открытием «Вахты Памяти» 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острова поздрави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области — руковод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убернатора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 Для Сахалина — большая честь, что «Вахта Памяти» открывается именно у нас. Мы боролись за это право. Здесь, на наших островах, советские воины поставили точку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У нас есть действительно уникальные места, которые помогают пролить свет на самые страшные события в истории человечества. В их числе — Смирныховский район и остров Шумшу. Поисковики находят там останки бойцов и офицеров, военную технику. Это позволяет сохранять историческую правду, — рассказал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Символом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является солдатский медальон, найденный поисковиками на полях сражений. По традиции — в ходе открытия поискового сезона — одну из таких личных вещей передают родственникам советского воина.

Сегодня медальон вернулся в семью из Корсакова. Он принадлежал Филиппу Мишкорувному, погибшему в Новгородской области. В памятном знаке была оставлена записка.

— Останки солдата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прошлой осенью кировскими поисковиками. Медальон и другие личные вещи передали правнучке бойца. На мой взгляд, это самое значимое событие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Для нашего региона — это уникальный случай, — подчеркнул Артем Бандура, руковод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Поис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России».

Во время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дили ряд поисковиков. Им вручил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Президента РФ, Благодарности, а также медали «Памяти героев Отечества».

Отметим, на этот сезон у островных поисковиков намечены большие планы. Так, с апреля по октябрь в регионе запланированы выезды островных активистов-общественников по проекту «Вечный полёт». Они нацелены на поиски останков советских летчиков и обломков разбившихся самолетов.

А в конце мая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стартует полевая экспедиц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ронт» с участием поисковиков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других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В ее составе будет работать студенческий отряд, который создадут на базе СахГУ. Ребята научат поисковой работе и анализу архивных данных. В середине июля поисковики отправятся на остров Шумшу, где шли финальные сраже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Дни открытых двер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инвесторов состоятся в Москве 22 и 23 апреля

Потенциальные инвесторы познакомятся с картой возможностей и перспективами развития бизнеса в сферах домостроения, лесопереработки, водородной и альтернативной энергетик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вместно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Корпорацией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и Корпорацией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течение двух дней представят ряд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напрямую связанных с присоединением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к эксперименту по достижению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должны стать пилотн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апробации механизма торговли эмиссиями на выбросы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Разработан законопроект, который предполагает установить целевые показатели по сокращению выбросов и увеличению поглощения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создать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для поддержки климат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и обращения углеродных единиц.

Для конструктивного диалога между властью и бизнесом на дни открытых дверей приглашены руковод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и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министерств и ведомст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рупнейш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орпораций и компаний.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состоится презентация экспортоориентированного проекта технопарка лесопереработки в Тымовском районе. Прогнозируется ежегодный объем переработки древесины свыше 1 миллиона кубометров.

Участники панельной сессии представят проект индустриально-строительного парка «Корсаковский»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строительных модулей. Планируемый объем выпуска — до 30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модульных домокомплектов в год.

В блоке энергетики планируется обсудить проект по созданию ветро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кластера в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е. Производство может стать локомотивом развития локальной энергетики на основе возобновляемых источников энергии. Заявленная мощность ветропарка — 67,2 МВт, это будет самая крупная ветроэлектростанц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Одна из сессий будет посвящена перспективам развития водородного кластер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оссийские компании представят свое видение кластера,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го на производство водорода на экспорт. Это позволит создать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новую индустрию низкоуглеродного топлива с многоцелевым применением в регионе: на транспорте, в энергетике,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программой Дня открытых дверей и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можно по ссылке: <http://openday.korpsu.ru>.

Премия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вручили в Томаринском районе

Лауреата и участников масштабн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чествовали накануне встречи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я Байдакова с томаринцами.

— Спасибо за вашу неравнодушную жизненную позицию. За то, что направляете свои таланты и энергию на то, чтобы сделать жизнь в родном городе, селе и во всем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лучше. Поздравляю с победой и желаю не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на достигнутом, — сказал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Лауреатом премии губернатора стал учитель физкультуры школы села Красногорск Виктор Нестеренко. Его отметили в номинации «Гордост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одноминации «Гражданская позиция». Земляки выдвинули кандидатуру учителя на конкурс, отмечая его отвагу, самоотверженность, инициативу и мужество. Виктор Нестеренко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 спасательных операциях в родном район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он помогал ликвидировать большой пожар в Красногорске.

— Мне приятно получить такую награду. Хотя не считаю, что совершил нечто великое. Приходить на помощь ближнему, когда тот в ней нуждается, — это естественно. Такое отношение к жизни стараюсь привить и ребятам в школе, — поделился Виктор Нестеренко.

В Томаринском районе вручили также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ми были отмечены директор МУП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Наталья Зайкина, учитель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школы №2 Томари Владимир Пешехонов, настоятель Крестовоздвиженского прихода иерей отец Алексей.

Премия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2020» объединила людей самых разных профессий — учителей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рачей и спортсменов, волонтеров и благотворителей, социальных работников и молодых активистов. В проекте участвовали не только жители, но и предприятия,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учреждения. Всего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голосования определены 59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и 119 лауреатов.

Из-за пандемии масштабную церемонию награждения провести не удалось — итоги подвели на праздничном онлайн-концерте. Поэтому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 чествовать победителей во время визитов в районы губернатора 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России к 1 июля готовят целостную систему мер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с детьми

Такую задачу сегодня перед кабинетом министров поставил Президент РФ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бращаясь с ежегодным посла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Тема демографии стала одной из ключевых. В послании Президент объявил о новых мерах поддержки материнства и семей с детьм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редложил платить нуждающимся беременным женщинам по 6350 рублей в месяц, а семьям с детьми 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произведут единовременную выплату в 10000 рублей на каждого ребенка. Кроме того, как заявил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больничные по уходу за ребенком до 7 лет включительно должны оплачиваться до 100 процентов от заработка. Также Президент предложить поддержать неполные семьи. Одиноким родителям, получателям алиментов будет назначена выплата в размере 5650 рублей на ребенка в возрасте от 8 до 16 лет включительно.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семей с детьми установлено более 50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На их ре-

ализацию в областном бюджете заложено 6,3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В результате всех принятых мер число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на островах увеличилось более чем на 6 процентов. В общем рейтинге регионов по «суммарному коэффициенту рождаемост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имает пятое место и первое место по ДФО,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помни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оставляют областную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на второго или последующих дете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его размер составляет 250 тысяч рублей. Также в случае рождения второго ребенка предусмотрена единовременная выплата в размере 266 тысяч рублей семьям на погашение ипотечного кредита.

Семьям, в которых родился третий или последующие дет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единовременная выплата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ил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жилья до 2-х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веден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семьям с детьми-инвалидами, многодетным семьям, имеющим четверо и более детей, на улучшение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размер которых составляет от 4,0 до 8,5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остава семьи.

Для семей с низкими доходами установлен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адресная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ая помощь, компенсация за приобретение школьной формы, а для молодых семей — единовременные выплаты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коляски и товаров для новорожденных). Также существенная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помощь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многодетным и студенческим семьям.

Всех иногородних студентов СахГУ расселят до 1 сентября

Об этом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рассказала врио ректора университета Мария Ганченкова. Обучающихся начали размещать в одном из хостелов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о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и студентам предоставят мес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Доме ветеранов». Всем бюджетникам, которые решат снимать жилье,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будут предоставлять ежемесячную компенсацию — до 6,2 тысячи рублей.

— Жильем необходимо обеспечить всех студентов. При этом на местах нужно организовать питание. Ребята не должны думать и о том, как им добираться до учебных корпусов — следует решить транспортный вопрос. Конечно, полностью проблему с проживанием студентов можно закрыть только строительством современного общежития. А пока его нет, будем создавать условия для студентов всеми доступными нам способам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тудентов первой «волны переселения», проинформируют индивидуально. По возникшим вопросам можно обратиться на горячую линию: 8-(4242)-452-306.

Отметим, с 15 апреля студенты 4СахГУ начали возвращаться к очному обучению. За парты сели обучающиеся первых и выпускных курсов институтов и колледжей, а также студенты очно-заочной формы обучения. Выбор курсов связан с особенностями организаци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процесса.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к привычной форме обучения вернутся около 1200 студентов.

Сейчас университет формирует расписание до конца учебного года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бы перейти к смешанному обучению — в очном и дистанционном форматах одновременно.

С 15 апрел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ъявлен пожароопасный сезон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н устанавливается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 Это значит, что все службы, осуществляющие контроль в данной сфере, будут находиться в режиме полной готовности. Кроме того, организуем работу с жителями, направленную на профилактику возникновения лесных пожаров, — рассказала Анна Михеева,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ГО ЧС и ПБ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пожароопасного сезона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запрещается разводить костры и использовать открытый огонь для приготовления пищи вне специально отведенных и оборудованных для этого мест.

Мусор, траву, листву, а также другие отходы и материалы разрешено сжигать только в определенных местах и способами, которые установили органы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Особ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возложена на владельцев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и территорий СНТ. Они обязаны проводить своевременную уборку мусора, сухой растительности и покос травы. Запрещается устраивать свалки горючих отходов.

Чтобы избежать возникновения пожара и дальнейше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огня, необходимо соблюдать бдительность. Нельзя разводить костры ближе 50 метров от зданий и сооружений, сжигать траву и мусор на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олях, захламывать противопожарные разрывы и прилегающую к строениям территорию, перегораживать дороги и проезды к объектам и источникам противопожарного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 случае установления особого противопожарного режим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открытого огня строго запрещено. За несоблюдение требований пожа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грозит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ая и уголовн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Отметим, при пожаре необходимо звонить по единому номеру вызова экстренных служб — 112.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모스크바 한국인 30년사' 발간

모스크바에 이주한 한국국적 동포들의 30년 역사를 정리한 최초의 자료집

모스크바한인회(회장 박형택)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모스크바 한국인 30년사'를 발간하고 4월 14일 주러시아한국문화원 2층 대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회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박호 주러시아한국대사관 총영사를 비롯해 모스크바 한인사회 원로 및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석했다. 모스크바한인회는 2019년 말에 '모스크바 한국인 30년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반에 걸쳐 자료 수집과 집필 작업을 진행했다.

한인회에 따르면, 그동안 고려인 및 사할린 동포(소련 시절 이주)를 중심으로 한 재외한인사는 러시아 및 고려인 학자, 한국의 러시아 전공자 등에 의해 꾸준히 집필돼 온 반면 한국 국적자의 모스크바 이주사의 경우 제대로 조명된 적이 없었다.

이러한 면에서 이번에 발간된 '모스크바 한국인 30년사'는 민간 차원에서 사료 정리와 고증을 통해 모스크바에 이주한 한국인의 30년 역사를 정리하고 원로 인터뷰, 사진 자료 등을 제시한 최초의 자료 집이라고 할 수 있다.

총 384페이지 분량인 '모스크바 한국인 30년사'는 발간사와 축사를 시작으로 1부 모스크바 한인사회의 형성과정, 2부 한인단체의 설립과 발전, 3부 모스크바 한인사회 모습 그리고 연표, 사진 및 수기 등의 부록으로 구성됐다.

박형택 한인회장은 발간사에서 "지난 30년을 정리하면서 알게 된 한국인들의 모스크바에서의 삶은 언제나 갈등과 도전의 연속이었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편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소중한 자료를 제공해 준 여러 기관 및 단체에 감사드리며 모스크바 한인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책을 발간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모스크바한인회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모스크바 한국인 30년사'를 발간하고 4월 14일 주러시아 한국문화원 2층 대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사진 모스크바한인회)



모스크바한인회가 발간한 '모스크바 한국인 30년사'

(사진 모스크바한인회)

[우리말로 깨닫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우리말에는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위로하는 말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액땀으로 생각하라', '그만하기 다행이다' 등이 있습니다. 분명히 위로의 말인데 '다행'이라는 표현을 써서 어색한 면도 보입니다. 다친 사람에게 다행이라는 표현이 안 어울려 보이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더 큰 고통이 오지 않았음은 다행이기도 합니다. 액땀을 한 거죠.

이왕 다치거나 병이 든 것이라면 폭 쉴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 때 쓰는 표현이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입니다. 넘어지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일단 몸에도 고통이 오지만 마음에도 고통이 옵니다. 남에게 뒤쳐질지 모른다는 걱정은 두려움이 됩니다. 한 번 넘어지면 다시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달리기 경주라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단거리 경주라면 이미 승부는 난 것이죠. 도저히 다시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 그 자체일 겁니다. 물론 다시 일어나서 승부에 상관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 역시 남과의 승부보다 자신과의 승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망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단거리 경주라도 승부가 단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면 좌절에서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단거리 경주도 한 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경주는 나와서의 경주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이전의 나와 함께 달리는 겁니다. 기쁜 경주였으면 합니다. 늘 초조한 경주가 아니라 늘 달리고 싶은 경주였으면 합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장거리 경주라면 한 번 넘어지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에 마라톤 경기를 보는데, 뒤쳐져서 다시는 못 따라올 것 같던 선수가 끝내 1등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절대로 못 따라올 거라고 해설하던 사람의 당황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물론 운동경기에서는 특이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발목이 빠면 참 아픕니다. 다시 일어나서 땀 힘조차 얻지 못합니다. 그 때는 좀 쉬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럴 때 좀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느라 보지 못했던 주변 경치도 보고, 내 주변에서 응원해 주던 사람들도 돌아보면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아무래도 달리다 보면 주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확실히 지나가며 보게 됩니다. 사물도 그렇지만 사람을 대충 보는 것은 문제입니다.

넘어져서 그 김에 쉬면서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그동안 뛰어온 길을 되살펴 봅니다. 문득 눈물이 날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뛰어왔을까 서글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실컷 울어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눈물도 인간의 특권입니다. 주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나보다 나를 걱정하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앞만 보고 달렸던 지난날의 내가 미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넘어진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좌절이라든가 절망이라는 단어로만 표현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마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위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힘들지만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겁니다. 인생사 새옹지마이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생깁니다. 알 수 없기에 지금의 상황을 고마워합니다. 힘들다면, 넘어졌다면 그 김에 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니까? 문득 바라본 하늘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지. 아니면 손을 내밀어 주는 고마운 사람을 만나게 될지.

(출처: 재외동포신문)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LI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АСПИРАНТОВ И СОТРУДНИКОВ
УНИВЕРСИТЕТА

**XVIII ВЕСЕННИЕ СТУДЕНЧЕСКИЕ
НАУЧНЫЕ ЧТЕНИЯ**

КАФЕДРА ВОСТОЧНОЙ ФИЛОЛОГИИ

СЕКЦИИ:

**ЯЗЫКОВАЯ И СОЦИОКУЛЬТУРНАЯ ДИНАМИКА
РАЗВИТИЯ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МНОГООБРАЗИЕ КУЛЬТУР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КОРЕИ (ТРАДИЦИИ И
ЦЕННОСТИ)**

Дата проведения: 27 апреля 2021 г.

12:00 ауд. 14 ул. Ленина, 290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ПОДАВАТЬ НА КАФЕДРУ ВОСТОЧНОЙ ФИЛОЛОГИИ ИЛИ
@IFIIV_SAKH**

**(В ЗАЯВКЕ УКАЗАТЬ ФИО ПОЛНОСТЬЮ, КЛАСС/КУРС,
УЧЕБНОЕ ЗАВЕДЕНИЕ, КОНТАКТНЫЕ ДАННЫЕ)**

공부 **경쟁** **힘** **유**

분위기 **싸움** **편함** **자**

즐거움 **왕따** **안함** **힘들다**

재미있다 **솔직하다** **빠센** **생기발랄**

체육복 **복잡한** **자유로운** **덜렁**

내신따기 **생각** **유** **조금**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Как всегда, на ярмарке будут творческие события:
· 24 апреля в 11 часов открытие выставки квилт-студии "Лоскутный остров";
· 24 апреля в 13 часов танцевальное шоу студии "Фламенко Корасон".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иготовили новые фото-зоны и не сомневаются, что посетители ярмарки унесут с собой удивительное весеннее праздничное настроение!

Ярмарка будет работать 24-25 апреля с 11 до 17 часов.

Вход свободный.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оспект, 31.

자전거 선수 체호브를 기념하여 크림반도에서 사할린까지 주행

4월 19일(월) 알타에서 '체호브의 길들로: 크림 - 사할린'이라는 기획으로 자전거 주행이 시작됐다. 이 창작 기획은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에 사는 블라디미르 라브두긴이 '체호브와 사할린' 역사문학 박물관의 통신티, 조직적인 지원 아래 실현되었다.

자전거 일주는 사할린의 첫 박물관 설립 125주년과 알타의 체호브 자택 박물관 설립 100주년을 맞이해 진행된다.

자전거 일주의 일환으로 블라디미르 라브두긴은 크림반도에서부터 러시아의 길을 따라 사할린까지 12,000km 이상을 주행해야 한다. 그 길로 자신의 삶의 여러 시기에 러시아의 작가이자 극작가인 안톤 체호브가 지나갔다. 블라디미르 라브두긴은 자신의 자전거 주행이 4

월 19일부터 8월 15일까지 120일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행 노선은 알타 - 케르치 - 로스토브-나-도누 - 타간록 - 체호브 - 모스크바 - 야로슬라블 - 니즈니노브고로드 - 페름 - 예카테린부르크 - 튜멘 - 크라스노야르스크 - 이르쿠츠크 - 치타 - 스테렌스크 - 하바롭스크 - 니콜라옙스크-나-아무레 -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까지다.

Велосипедист в память о Чехове проедет от Крыма до Сахалина

19 апреля в Ялте дан старт велопробегу под названием "Дорогами Чехова: Крым — Сахалин". Это авторский проект Владимира Равдугина, жителя Александровска-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торый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им пр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и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й поддержке историко-литературного музея "А. П. Чехов и Сахалин".

Велопробег приурочен к 125-летию со дня образования первого музея на Сахалине и 100-летию дома-музея Чехова в Ялте.

В рамках велопробега Владимиру Равдугину предстоит преодолеть более 12 тысяч километров по дорогам России от Крым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до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 по которым в разные периоды своей жизни проехал великий русский писатель и драматург Антон Чехов.

Владимир Равдугин предполагает совершить свое велопутешествие за 120 дней — с 19 апреля по 15 августа — по следующему маршруту: Ялта — Керчь — Ростов-на-Дону — Таганрог — Чехов — Москва — Ярославль — Нижний Новгород — Пермь — Екатеринбург — Тюмень — Красноярск — Иркутск — Чита — Сретенск — Хабаровск — Николаевск-на-Амуре —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아리랑〉무용단 박영자 단장님께 드리는 축하문

1980년대 초

반에 한때 본사에서 활동하셨던 박영자 님의 고회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족혼이 넘치시고 예술 감각과 열정이 많으신 박영자 단장님께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고, 손녀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며 모든 일에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С ЮБИЛЕЕМ!

Пусть не чувствует сердце усталости,

Это зрелость во всем и всегда,
Это опыт большого труда.

Это возраст совсем небольшой,
Только если не стареть душой.

Счастья Вам полную чашу
За труд и отзывчивость Вашу!

새고려신문사 전 및 현 직원 일동

Реклама

САХКОМ ЕДА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